

#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5년 8월호

- ◆ 이슈 분석: 중국 국유기업 최근 동향 및 개혁 추진 방향
- ◆ 산업분석: 중국 웨어러블기기 개발 동향과 시사점
- ◆ 산업정책해설: 중국, 신성장동력으로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
- ◆ 산업 동향 분석
  - 6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상승세 시현
  - 7월, 관방치는 하락, 민간치는 폭락
- ◆ 산업단신
  - 13.5 계획, 지역발전 격차 축소에 초점 맞춰질 듯
  - 중국 스마트폰시장: 중국 브랜드 굴기로 한국 브랜드 타격
  - 中 자동차산업 성장둔화 속, SUV 및 신에너지 자동차 강세 뚜렷
  - 상반기 중국 조강(粗鋼) 생산량 20년 만에 하락
- ◆ 특별기고: 텐진항 폭발사고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韓國産業研究院北京代表處)

연락처: 北京 Tel 010-8237-8633, Fax 010-8237-8663

인터넷전화(한국) 070-8837-3212; E-mail: [kietcn@naver.com](mailto: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www.china.go.kr](http://www.china.go.kr))

\* 지난 호는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에서 구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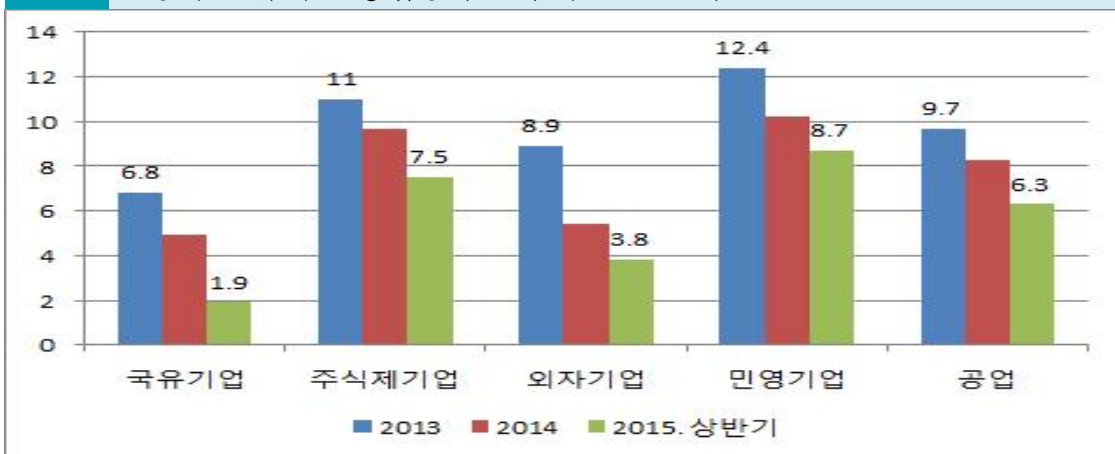


## 중국 국유기업 최근 동향 및 개혁 추진 방향

### □ 상반기 국유기업 경영실적과 특징

- 2015년 상반기 국유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정부의 최대 정책 현안으로 대두
  -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2013년 9.7%에서 2015년 상반기에 6.3%로 3.4% 포인트 하락하면서 GDP 증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

그림 1 중국 소유제별 공업증가율 추이 비교(단위: %)



자료: 中國經濟景氣月報

- 그 중 동기간 국유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8%에서 1.9%로 무려 4.9% 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전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 동기간 주식제기업은 3.5%p, 외자기업은 5.1%p, 민영기업은 3.7%p 씩 급락,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실적이 가장 많이 폭락

※ 중국기업의 추격이 빨라지면서 공업 전반에 걸쳐 외자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음.

○ 국유기업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는 10%~14%로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

- 과거 국유기업은 장기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실적과 경쟁력이 점차 높아졌으며, 특히 1999~2001년 ‘국유기업 경영난 극복(国企脱困)’ 등 대대적인 제도혁신을 추진하면서 경영효율이 대폭 상승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 성장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소극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조정과 개혁에 직면,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정풍운동의 주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경영 상황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

그림 2 중국 국유기업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자료: WIND, SWS(申万宏源研究)

○ 상반기 국유기업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21조 7,689억 8천만 위안을 기록

※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부처 산하의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구분

- 그 중 중앙국유기업 영업수입은 13조 2,120억 위안으로 하락폭이 무려 7.1%에 달함.

※ 중앙국유기업이 전체 영업수액액의 60.7%를 차지

- 지방 국유기업의 영업수입은 8 조 5,569 억 8 천만 위안으로 3.7% 소폭 감소
- ※ 지방 국유기업 수는 전체 국유기업의 68%에 달하나 영업수입 비중은 39.3%에 그침.

**그림 3** 국유기업 영업수입액 증가 추이



자료: 재정부

- 그러나 금년 들어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국유기업 (국유 독자 또는 국유지주기업, 금융업 제외)의 경영 상황은 점차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 국유기업의 이윤액은 상반기 1 조 2,332.9 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에 그침. 금년 1/4 분기 이윤감소율이 7.9%였음을 감안하면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임.

- 이윤 감소는 대부분 중앙국유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방 국유기업의 이윤은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 상반기 대비 8.2%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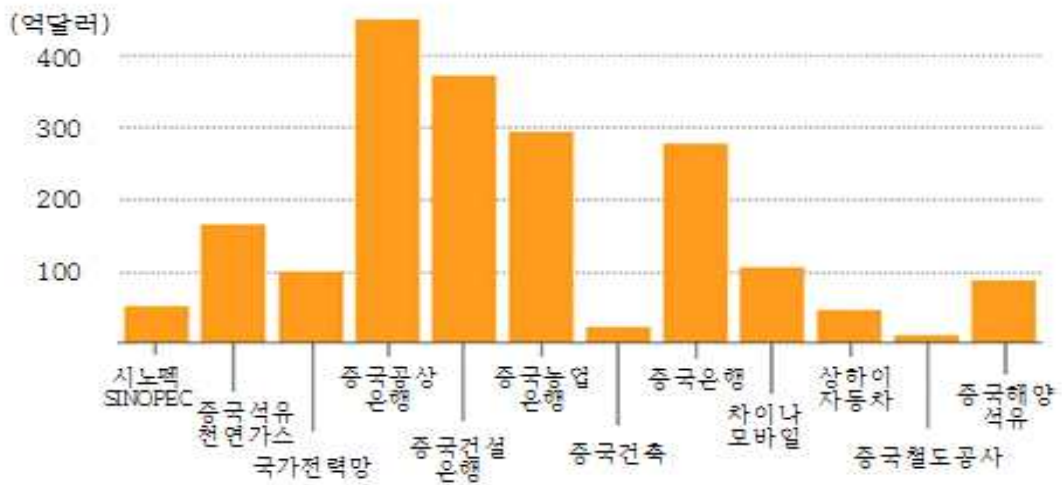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석탄, 철강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반면, 비철금속산업은 여전히 심각한 적자상태에 놓여 있으며, 교통, 화학공업, 전자, 전력 등의 이윤이 대폭 증가함.

- 상반기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은 각각 6억 2천만 위안, 8억 3천만 위안의

이윤을 기록한데 비해, 비철금속의 적자규모는 44억 6천만 위안에 달함.

- 중국의 석유, 전력, 철도 등 분야 국유기업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Fortune China’ 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오른 중국 기업 106개 가운데 국유기업이 84개에 달하며, 심지어 중국기업 1~12위 모두 국유기업임.

**그림 4**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대 중국 국유기업(이윤 기준)



자료: <Fortune China>

### □ 최근 국유기업 개혁 추진 동향

○ 2013년 10월 당 제18차 삼중전회에서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新一轮国企改革)을 언급하면서 국유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혁조치를 추진

- 제18차 삼중전회에서 향후 국유기업 개혁에서 재산권 상의 혼합소유제, 싱가포르 국유기업 테마섹(TEMASEK)의 운영모델 도입, 국유기업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정부가 100% 출자한 국유투자기업으로 국유자본의 시장화 운영모델의 성공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음.
  - ※ 이사회제도를 도입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한 것이 특징

- 중앙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4대 개혁’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국유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 **(4대 개혁)** 국유자본투자회사 구조 개혁(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국유자본 통제 강화), 혼합소유제 개혁, 이사회를 통한 고위 관리직급 인사선임, 중앙기업의 국유자산 관리책임자를 기율검사위원회 감독 범위에 포함
  - 장관급 기관인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2014년 7월, 국가개발투자회사(国家开发投资公司), 중량그룹(中粮集团), 중국의약그룹(中国医药集团总公司) 등 6개 중앙기업을 시범 기업으로 선정하여 각 기업마다 차별화된 개혁 조치를 추진
  
- 금년 5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关于2015年深化经济体制改革重点工作的意见)’에서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명확히 제시함.
  - 이에 근거해 ‘국유기업 심화개혁지도의견(深化国有企业改革指导意见)’이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으며, 관련 부속정책인 15건이 제정되는 등 국유기업 개혁조치인 ‘1+15’ 체제가 속속 구축 중에 있음.
    - ※ 국유기업심화개혁지도의견은 8월~9월중 발표 예정으로 있음.
  - 15개 문건에는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발전, 중앙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재편방안, 국유자본 운영회사와 투자회사 시범운영, 국유자산 거래유통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및 시행세칙 등이 포함됨.
  - 발개위에 이어 6월 5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가 국유자산의 유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sup>1)</sup>을 발표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1) 《关于在深化国有企业改革中坚持党的领导加强党的建设的若干意见》，《关于加强和改进企业国有资产监督防止国有资产流失的意见》

**표 1** 중국 국유기업 개혁 ‘1+15’ 체제

종합정책	《국유기업 심화개혁 지도의견(深化国有企业改革指导意见)》
15개 부속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유자산관리체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경제 관련 문건 제정</li> <li>2. 중앙기업 구조조정 및 재편 방안</li> <li>3. 국유기업 법인관리구조 방안</li> <li>4. 중앙기업 이사회 이사평가방법</li> <li>5. 중앙기업 유형별 분류 및 심사 실시세칙</li> <li>6. 기업의 국유자산 감독 범위 개선 및 국유자산 유실 방지강화에 관한 의견 (2015.6.5. 발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li> <li>7. 외부 파견 감사회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li> <li>8. 국유기업 국유자본 회계감사 감독체계와 제도 구축</li> <li>9. 국유기업 내부 감독체계</li> <li>10. 국유기업 경영투자책임 추궁제도 지도의견</li> <li>11. 전력체제 심화개혁에 관한 약간의견 및 관련 정책</li> <li>12. 석유천연가스 체제 개혁 총체방안</li> <li>13. 국유기업 투자사업에 대한 비국유자본 유입 장려 및 규범화 지도 의견</li> <li>14.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및 유통거래가 보다 자유로운 재산권제도 구축</li> <li>15. 국유자산 거래유통 감독관리방법 및 실시세칙</li> </ol>

### □ 국유기업 개혁의 5대 특징

- **(특징1)** 기존의 일괄적 감독방식에서 국유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심사표준을 적용해 관리 감독하는 차별화된 감독방식으로 개혁
  - 유형별 차별 관리감독은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기초를 둔 조치로 현재 공익보장형, 특정기능형, 상업경쟁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 공익보장형 기업에는 중국비축면관리공사(中儲棉, CNCRC), 중국비축식량관리공사(中儲糧, Sinograin) 등이 포함, 특정기능형 기업에는 석유·석유화학, 전력, 통신 등 분야의 중앙기업 18개와 군수공업기업 11개가 포함, 상업경쟁형 기업에는 총 77개가 포함.

○ **(특징2)** 국유자산 관리체계가 출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资委), 자본 운영: 국유자본운영공사(国有资本运营公司), 기업경영: 경영성 국유기업(经营性国企)의 3단계로 전환

- 현재 국자위는 국유자산 행정주관부처이자 출자인으로서 기업경영과 자산관리의 이중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업의 인사부터, 전략기획, 경영, 재무회계, 법률 문제 등 각 분야의 결재 권한을 갖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국유자산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
- 향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은 국유자산의 관리체제를 현행 국유자본감독관리기관과 경영성 국유기업으로 이루어진 2단계에서 국유자산운영공사를 추가한 3단계로 확대

○ **(특징3)** 경영성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 국자위는 출자자 신분에서 벗어나 순수한 감독관리 기관으로서 역할만 하고, 자본운동을 책임지는 국유자산운영공사가 국유자본의 증자·감자를 책임지는 체제가 형성
- 국유자산운영공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다른 소유제 형태의 기업과 제휴 또는 공동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 경영성 국유기업 차원에서는 주로 혼합소유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

○ **(특징4)** 경영성 국유기업에 스톡옵션과 직원주주제를 도입

- 경영성 국유기업은 스톡옵션과 직원주주제 개혁을 추진하고, 고위 관리직의 연봉과 관련해 국유기업 관리직원의 연봉 수준을 엄격히 규범화할 계획
- 성과연계형 주식(Performance Shares),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hares), 배당권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 2015년 1월 12일, 국자위는 ‘혼합소유제기업의 직원주주제 시범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混合所有制企业实行员工持股试点的指导意见)’을 심의 통과함.

○ **(특징5)** 국유기업 개혁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자산 증권화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의 주요 방식으로 대두

- 전체 기업 수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1.8%에 불과한데 비해, 증권시장 상장 기업중 국유기업 비중은 38.2%에 달함.

※ 상장 국유기업 수 996개

-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조달이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추진 방향이 되었고, 다수의 지방정부가 국유자산의 증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 중 후난(湖南)성은 국유자산 증권화 목표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20년까지 80%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 베이징, 간쑤(甘肃), 후베이(湖北) 등 대부분의 지역은 2020년 국유기업 증권화율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충칭(重庆)과 광둥(广东)은 2015년에 70%와 60%를 달성할 계획임.

## □ 국유기업 개혁에 유리한 요건 조성

○ 한편, 금년 6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중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무원은 기존 과잉생산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전력망 기술개조, 식량 창고시설, 도시 오수처리시설, 도시지역 노후공업단지나 독립적 광산지구 등의 재개발 및 이전을 강조

- 수리시설, 중서부 철도사업 등 7가지 중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신홍산업,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현대물류, 도시궤도교통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

- 도심지구 판자촌 개조 1,800만호와 농촌 낙후주택 1,060만호 재개발 및 교통·통신, 수도·가스·난방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
-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장려책에 힘입어 중앙국유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성장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대일로 중국기업 로드맵(一帶一路中国企业路线图)》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중국 중앙국유기업 110여개 가운데 107개사가 해외에 8,515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그 중 일대일로 관련국에 진출한 기업은 80여개
  - 2011년~2014년, 중앙국유기업의 해외 자산규모가 2.7조 위안에서 4.6조 위안으로 급증하면서 연평균 증가율 12.2%를 기록
    - ※ 2014년말 중앙국유기업의 해외 자산총액, 영업수입, 이윤액이 중앙국유기업 전체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7%, 18.3%, 8.6%임.
  - 중앙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에너지, 철도, 전자재에 집중되고 있으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얀마, 태국 등 국경 국가와 송유관, 송전선, 철도, 도로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중앙국유기업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있어 에너지, 철도 등 인프라 건설 등에서 중요한 국책 역할을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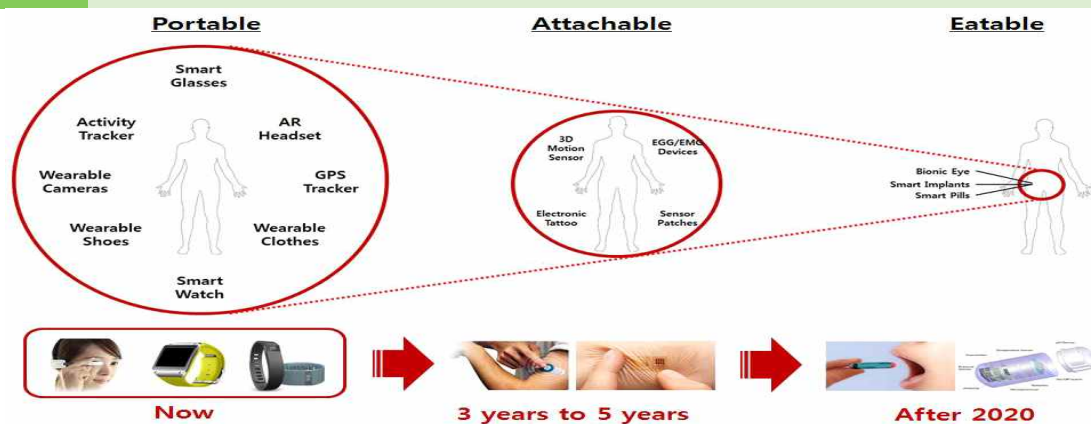
## 중국 웨어러블기기 개발 동향과 시사점

신성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동원

### □ 웨어러블기기: IT기술이 적용된 신체에 착용하는 스마트기기

- 웨어러블기기란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가 가능한 모든 것을 지칭하며 컴퓨팅 기능 수행이 가능한 일부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sup>2)</sup>
- 웨어러블기기는 제품 용도에 따라 산업용, 의료용, 엔터테인먼트용, 게임용, 피트니스용, 라이프스타일용 및 애완동물용의 7가지 제품군으로 분류 가능
  - 한편 기기의 착용형태에 따라 밴드형, 머리착용형, 의류형 등의 형태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전망

그림 1 웨어러블기기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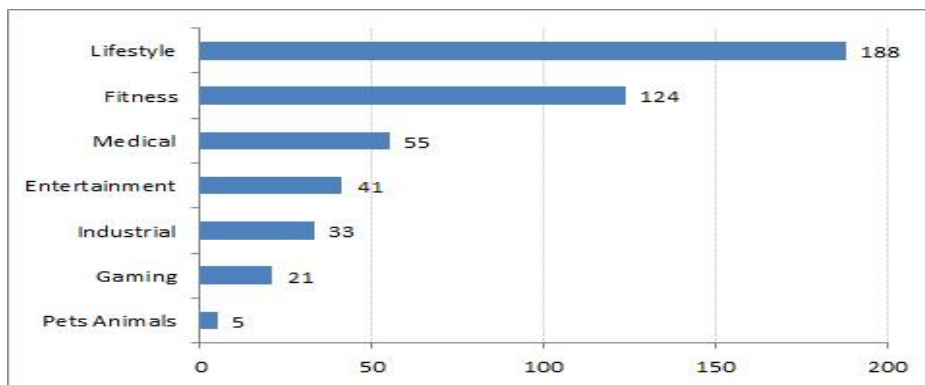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산업백서」, 2014.

2) MIT Media Lab 정의

- 현재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제품은 약 317개이며 이 중 라이프스타일용 제품이 188개, 피트니스 제품이 124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전세계에 출시된 101개사의 1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착용형태별로는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 및 시계형 등의 제품이 전체의 46.9%, 머리에 착용하는 안경형태 등의 제품이 20.8%를 점유<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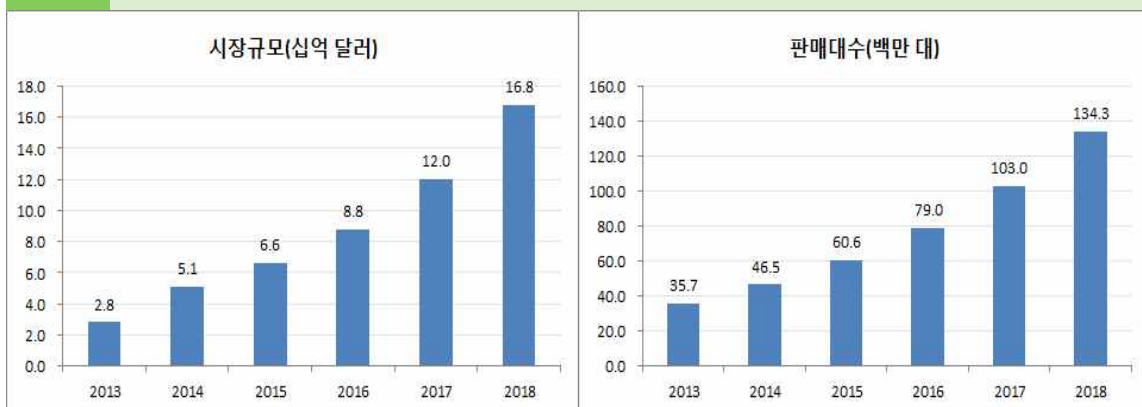
그림 2 웨어러블기기의 종류(단위: 개수)



자료: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 *Global Retail & Technology*, 2015.7.8.

□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

그림 3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시장추이 및 전망



자료 : FUNG BUSINESS INTELLIGENCE CENTRE, *Global Retail & Technology*, 2015.7.8.

주: 판매대수는 MarketsandMarkets, 시장규모는 ABI

Research/HIS/MarketsandMarkets/FBIC *Global Retail & Technology*의 전망치를 종합한 수치

3) MM総研、「日米におけるウェアラブル端末の市場展望」, 20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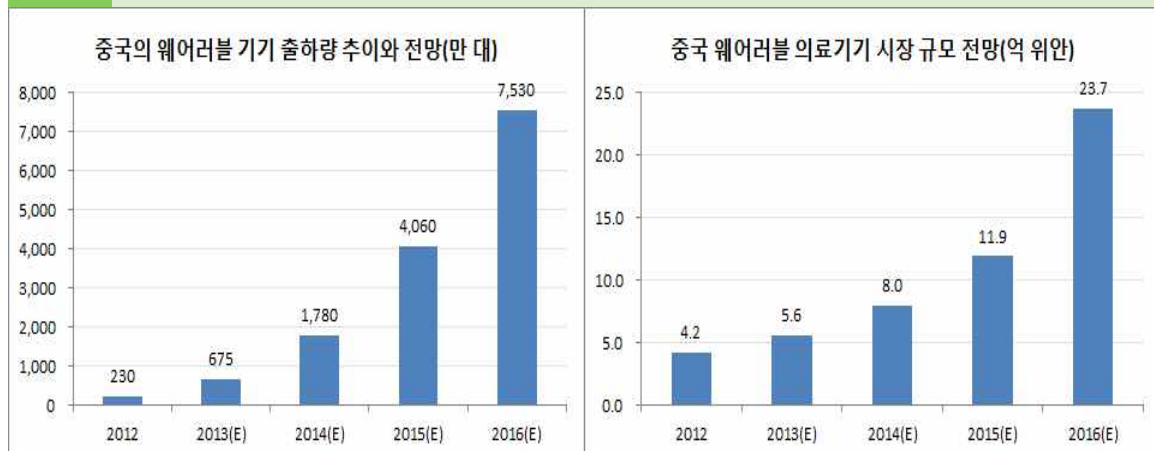
○ 웨어러블기기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응용되는 용도 및 제품형태가 다양해지며 산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시장은 2015년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약 28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약 168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 2015년 전세계 웨어러블기기 판매량은 약 6,060만대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1억3,403만대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가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시장의 확대를 견인

그림 4 중국 웨어러블기기 시장추이 및 전망



자료: KOTRA(2014), 「2014년 中 웨어러블기기 고속성장 전망」, 원자료는 iiMedia Research

- 중국 시장은 2014년에 북미 시장을 넘어섰으며 전세계 웨어러블기기 수요를 견인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

-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2012년 총 230만대의 웨어러블기기가 출하되었으며 2015년에는 4,0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금액기준으로는 2012년 6억 1,000만 위안에서 2015년 114억 9,000위안 규모로 급성장

- KOTRA에 따르면 중국 웨어러블기기 시장은 형태별로는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가 용도별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4)

- 2012년 기준 중국 웨어러블 의료 기기 매출액은 4억 2,000만 위안(전체 웨어러블기기 중 약 68%)이었으며 2015년에는 11억 5,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기업과 중국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

○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를 맞이하며 IT기업 및 이종기업들의 웨어러블기기 및 서비스 출시 경쟁이 가속화

- IC Insights에 의하면 2015년 휴대폰 출하량 성장률은 2013년 5%, 2014년 5%보다 낮은 3%로 전망

- 스마트폰의 경우, 전체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3년 37%, 2014년 29%, 2015년에는 19%로 출하량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IT기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기기 출시와 더불어 웨어러블기기 관련 플랫폼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 중

- 애플·구글 등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SW·서비스·의료·패션 등 타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제품영역의 확대를 모색

- 구글은 2013년 구글글라스 출시 이후, 제약업체인 노바티스 등과 제휴를 맺고 환자전용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 및 콘택트 렌즈)를 비롯한 다양한 웨어러블기기를 개발 중

-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앱) 부문에 있어서는 ‘타이젠(삼성)’ 과 ‘안드로이드웨어(구글)’ ‘iOS(애플)’ 의 독자적인 웨어러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도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 중으

4) KOTRA, 「중국도 입는다! 2014년 中 웨어러블(Wearable)기기 고속성장 전망」, 2014.1.6.

로 CES2015 참가업체 중 900여개(전체 25%)업체가 웨어러블 및 IoT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서비스를 출시<sup>5)</sup>

- 손목시계나 밴드 형태 기기 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가전업체 및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초기 시장 선점에 주력
- 한국의 경우 삼성과 LG가 스마트워치를 출시하였으며 인바디 및 3L Labs 등의 중소벤처기업들이 특수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기들을 개발

**표 1** 국내외 웨어러블기기 관련 기업동향

구분		전략
글로벌 대기업	애플·구글	· 기존 자사의 스마트폰 OS의 영향력을 웨어러블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출시 · 애플(홈킷, 헬스킷, 와치킷 등), 구글(안드로이드 웨어, 안드로이드 오토, 구글 핏 등)
	삼성·엘지	· 국내 대기업 역시 자체 기술개발 및 기업인수를 통해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중 · 삼성(타이젠 개발, 스마트싱스 인수 등), 엘지(WebOS 인수 등)
중소벤처 기업	해외기업	· 핏빗 등 해외 중소벤처기업들은 소비자 니즈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으로 초기 밴드 시장 선점 · Fitbit Flex(2013년 5월 출시), 시장을 초기 선점하여 개당 \$100 이상의 가격에도 피트니스 밴드 시장의 약 50% 점유 · 반면 샤오미 M밴드(2014년 8월 출시)는 \$15의 저가 보급형 기기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
	국내기업	· 인바디, 3L Labs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경쟁사와 차별되는 특수 기종에 초점을 맞춘 제품개발로 시장경쟁력 강화

자료: 미래성장동력추진단,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2015.4

○ 현재 주요 웨어러블기기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고가의 고급형 시장과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저가 보급형 시장으로 양분

- IDC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기본형 웨어러블기기가 시장을 이끌었으나 2015년에는 애플워치가 출시되며 스마트 웨어러블기기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기본형 웨어러블은 핏빗(Fitbit)밴드, 샤오미의 미밴드(Mi band)를 스마트

5) 미래성장동력추진단,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20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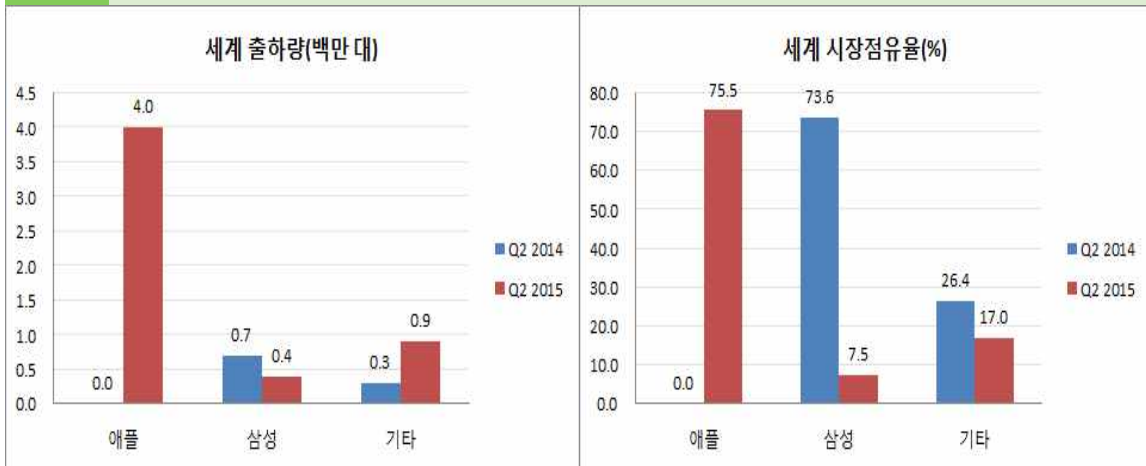
웨어러블은 애플워치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등이 포함

- 2015년 1분기 웨어러블기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는 핏빗(34.2%), 2위는 샤오미(24.6%)가 차지했으며 가민(6.1%), 삼성전자(5.5%), 조본(4.4%) 등이 각각 3위, 4위, 5위를 차지

○ 기본형 웨어러블기기 판매량은 중국기업인 샤오미의 저가 보급형 기기 미밴드의 출시로 2014년 2,210만대에서 2015년에는 3,900만대로 증가할 전망

- 미밴드는 통신기능을 배제하고 건강관리 기능(만보기 등 운동체크 기능, 수면시간체크, 알람기능 등)에 특화
- IDC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시장에서 샤오미의 점유율은 지난해 0%에서 24.6%(280만대)로 급등
- 같은 기간 핏빗의 판매량은 세배나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45%에서 34%(390만대)로 감소

그림 5 |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추이



자료: BUSINESS INSIDER, “Apple is already dominating the smartwatch marke at the expense of Samsung” 2015.7.24.

주: 원자료는 Strategy Analytics

○ 한편 42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 웨어러블기기 시장은 애플워치의 출시에 힘입어 3,310만대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



- Strategic Analytics에 따르면 2015년 4월 출시된 ‘애플워치’는 2분기 스마트워치 시장의 75.5%를 차지한 반면 삼성은 전년동기 대비 73.6%에서 7.5%로 하락

- 주요 선진국들과 경쟁국들은 웨어러블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제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실행 중

표 2 국내외 웨어러블기기 관련 정책 현황	
국가	주요 정책 현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주도로 학계와 군(軍) 컨소시엄 형태의 정보, 바이오, 나노기술 등 융합 혁신 기술개발에 집중</li> <li>·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5년간 5,000만 달러 투자, 연구결과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의료·복지·산업 현장에도 활용 계획</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지원아래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li> <li>· 스마트폰을 통해 신부전증 환자들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NephronPlus’ 프로젝트, 스트레스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INTERSTRESS’ 프로젝트 등 추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융합기술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상용화에 초점, 특히 특수목적용 웨어러블기기 개발에 투자</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웨어러블기기 관련 제품 및 부품 연구개발 지원방향 제시</li> <li>· 저전력 웨어러블 시스템,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단말기 간 연결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제품의 산업화 추진(국가발전개발위)</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 기본계획’(2014.5.8. 정보통신전략위)과 동 계획의 디바이스 분야 실행계획인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코리아 2020’을 통한 정책 발표</li> <li>·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가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 4대 기반사업) 중 하나로 지정 발표(2014.2.10.)</li> </ul>

자료 : 미래성장동력추진단,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2015.4

### □ 중국은 웨어러블기기 시장에서도 ‘대륙의 실수’ 전략을 적용

- ‘대륙의 실수’란 이전의 중국 제품들이 값만 싼 제품이라는 이미지였던 데 반해 최근 샤오미나 화웨이 등의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중국산 제품 혹은 전체적인 생산 메카니즘을 지칭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 제품에 대한 역설적 표현

- 지금까지의 중국식 모방전략은 산업의 성숙기에 일반화·범용화된 기존의 기술을 조합해 품질은 떨어지지만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
  -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발전하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향상된 제품을 생산해 내는 생산방식으로 진화
- 중국은 산업의 도입기에 있는 웨어러블기기 시장에서도 혁신적 기술이나 고급형 디자인 제품보다는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제품의 신속한 출시 전략을 구사
- 샤오미는 2015년 5월 핏빗의 100달러에 비해 훨씬 저렴한 미 밴드(Mi Band)를 약 15달러에 출시하였으며 ZTE는 내년 1분기에 저가의 보급형 스마트워치를 출시를 계획 중
  -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각(GEAK)은 삼성 및 애플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 워치인 각워치(GEAK Watch)를 출시

**표 3** 중국의 주요 웨어러블기기

분류	제품	소속기업	제품특징
미니컴퓨터	Eye Top	아오레이더	- 컴퓨터 전체기능 구비 - 나안 3D 디스플레이 채용, 3G와 WIFI 제공
건강관리	Codoon 손목띠	구동왕, 바이두	- 운동량 기록, 수면패턴 관리 또는 기록해 바이두 클라우드와 각종 시체기록을 연동 가능
	미밴드	샤오미	- 만보기 등의 운동체크 기능, 수면시간 체크, 알람 기능 등의 건강관리 기능에 특화
	스마트 신발 (출시예정)		- 스마트폰과 연동해 도보량과 심박수 등을 기록해 운동방법 조언
	Flash clip	상귀정보	- 무선 데이터 동기화 - 신체조건에 따른 칼로리 모니터링 - 건강 솔루션 프로젝트 및 클라우드 저장공간 제공
시각 손목시계	둥완	- 걸음걸이 수, 칼로리, 심박수 및 기타 운동량 데이터 수집과 업로드 - 미리알림 음성지원, 건강팁, 날씨정보 제공	
스마트 시스템	GEAK Watch	귀커전자	- 안드로이드 OS 탑재 - 일기예보와 맥박 및 심박수 모니터링 - 식사메뉴와 도보량 체크 - 스마트폰 연동 알림기능
	In Watch	잉취 테크놀러지	- 메가픽셀 카메라, 전화 및 메시지 기능 - 안드로이드 OS 탑재

	ZTE Grand Band	ZTE	- 만보기 등의 운동체크 기능, 스마트폰 착신 - 수면시간 측정 및 알람 기능
	Axon Watch (출시예정)		- 제스처와 음성명령, 통화와 문자, 음악재생 - 심박센서와 기압계 내장 - 운영체제는 텐센트 OS
	TalkBand B1	화웨이	- Bluetooth 헤드셋 기능 - 만보기 및 칼로리 계산기능, 스마트폰 착신
기타	GEAK Ring (휴대용 보안설비)	귀커전자	- 스마트폰에 접촉해 잠금해제 기능을 제공 - 기타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사진 공유 가능

자료 : KOTRA(2014), 「2014년 中 웨어러블기기 고속성장 전망」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

○ 중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웨어러블기기 시장 진입도 매우 활발하며 이와 더불어 대형 중국 기업의 시장진출도 가속화

- 중국 최대 검색 포털 기업인 바이두(百度) 및 온라인게임 업체인 성다(盛大) 등도 웨어러블기기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 중
- 한편 외국계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및 현지화 전략을 모색

중분류	소분류	상대수준					격차기간 (년수)				
		한	미	일	유	중	한	미	일	유	중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85.5	100.0	88.7	89.5	77.4	1.1	0.0	0.9	0.9	2.0
	웨어러블 디바이스	84.0	100.0	87.5	86.2	74.7	1.5	0.0	1.1	1.3	2.4
	차세대초고속방송/ 통신 디바이스	89.2	100.0	89.1	88.8	76.7	0.7	0.0	0.9	1.0	1.9
	ICT융합 디바이스	85.0	100.0	88.3	88.3	74.7	1.2	0.0	1.0	1.0	2.1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수준평가, 2014.

○ 중국은 향후 토착화되고 있는 특유의 모방생산시스템 및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저가의 보급형 기기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삼성 및 애플 등이 주력하고 있는 High-end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

- 중국의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상대적 기술수준이 주요경쟁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 시사점 및 전략

### ○ 중국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필요

- 2014년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웨어러블기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지 소비자의 니즈 파악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 현지화 전략 등을 고려
- 한국은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으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독창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

### ○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생산시스템 구축이 요구

- 중국의 경우, 지속적인 모방 생산시스템 속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즉각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
- 스마트폰을 비롯한 IT제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졌던 한국형 생산방식이 웨어러블기기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웨어러블기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이 시급

- 하드웨어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핵심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R&D 전략 수립이 필요
- 사물인터넷(IoT) 및 참여형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등의 관련 요소기술 확보

를 통한 미래시장 경쟁우위 선점이 요구

- 산업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융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구축
  - 중국뿐만 아니라 애플 및 구글 등의 선도기업도 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출시
  - 웨어러블기기 산업은 의류, 안전, 의료 등 산업간 융합이 필수적인 분야로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
  - 특히 융합을 저해하는 기술장벽 및 규제 등의 해소가 시급하며 중소벤처 제품의 적기 시장진출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험·인증 관련 지원 마련
-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품 사업화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
  - 대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의 상생공존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중국, 신성장동력으로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

### □ 국무원, 전자상거래 시장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발표

- 최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내수 촉진의 수단으로 부상
  -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16조 3,9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59.4% 증가
    - ※ 제조업체의 자체 온라인 몰을 통한 거래액이 8조 7,2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5.9% 증가
    - ※ 알리바바, 징둥 같은 제3자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7조 1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3.8% 증가, 그중 한국, 미국 등 해외 온라인 몰에서 구매하는 거래액은 4조 위안으로 추정
  - 2014년말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19.7% 증가한 3억 6,100만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48.8%에 달함.
  - 전자상거래가 폭증하면서 택배 서비스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규모의 고용 효과가 발생
    - ※ 2014년 택배 건수는 140억건으로 전년대비 51.9%가 증가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态)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흥 산업을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공정 경쟁질서 확립, 전자상거래와 타 산업과의 융합, 전자상거래 창업 촉진, 취업 안정화, 민생서비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
- 금년 전자상거래 목표액을 18조 위안으로 설정
- 2015년 5월 4일 국무원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신 경제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
  -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7대 실행방안을 발표

#### □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위한 3대 기본 원칙

- 첫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
  - 관련 정부 부처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모순 및 문제를 해결
  - 정부 자원의 개방, 인터넷 안전성 보장, 자금 지원, 기초시설 건설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 추진
  -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
- 둘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
  - 법에 의해 특별히 금지한 대상 이외의 모든 시장 주체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법에 의해 특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각 정부 부처들이 전자상거래 시장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함.

○ 셋째, 시장 정세에 기반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

-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연구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 □ 7대 실행방안

### ①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 조성

○ 유관 부처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조치

-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판공실) 전자상거래 사업 신청에 관한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심의 절차 및 허가 사항을 전면 철폐시키도록 함.
- (공상총국) 자본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先)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后)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성급 인민정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사업장소 등록 조건을 완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환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소화  
※ 전자상거래 기업의 위안화 직접투자를 장려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 비중 제한 정책을 철폐

○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세금 인하 혹은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 전자상거래 기업 중 벤처기업 인증을 받



은 기업들에 한해 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기업 역시 세금 혜택을 부여

- (재정부, 세무총국) 여행 및 생활 서비스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에 ‘영업세 전환 정책(营改增)’을 실시하여 해당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  
※ 영업세 전환 정책(营改增): 서비스업에 대해 부과하였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

○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강화

-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일정 조건을 갖춘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주식 시장 상장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
- (인민은행, 상무부) 전자상거래 기업이 유·무형자산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환경 조성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창업투자기금 조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행동을 규범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공안부, 상무부) 전자상거래 제품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리스크 예측, 인터넷 모니터링, 책임자 추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  
※ 허위성 광고, 불량품 생산, 수출 제한 상품 및 기술의 해외 판매행위, 불공정 경쟁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국, 상무부) 기업 독점과 같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
-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관세청, 신문출판광전총국, 지적재산권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의 발명 특허권을 보호하는 정책 강구

- (재정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각급 정부부처의 소비를 촉진

## ② 취업·창업 촉진

- 전자상거래 분야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통계국,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각 지역의 취업발전계획과 전자상거래 발전 종합 계획 내용에 전자상거래 분야의 취업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 전자상거래 분야의 취업 및 사회보장 지표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설립

- 공상부에 등록된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의 근로자들도 동등하게 취업·창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상부에 미등록된 업체의 근로자들은 임시근로자(비정규직)로 간주, 임시근로자들에 관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응용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제공

-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전자상거래 창업단지를 조성

- 전자상거래 창업자들에 대한 기존 창업기지들의 지원 역할 강화

-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재 수요-공급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상무부, 교육부,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기업·사회조직의 협력을 통한 전자상거래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및 실험·실습식 전자상거래 인재육성 모델 구축 장려

- 전자상거래 기업 주도의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촉진
  - 직업훈련 실시 및 자격 심사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
  - 일정 조건을 갖춘 직업교육기관, 사회훈련기관, 전자상거래 기업 주도의 온라인 창업교육 실시 장려
- 전자상거래 관련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기업 중 공상부에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의 경우, 노동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상부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업체들은 민사 협의에 의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함.
  - 공상부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의 근로자들은 임시근로자로 간주하여, 임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방법에 따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취업 취약자 혹은 대졸자들 역시 임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업그레이드 추진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민생서비스 혁신을 추진
- (국가여유국(旅游局), 공상총국) 관광명소, 호텔 등의 온라인 영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온라인 예약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온라인 관광 서비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도록 함.
  - (공상총국)은 ‘12315’ 전국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고발 및 권익보호 체계를 개선(12315: 소비자 고발센터)

※ 7일내 무이유 반품/교환 정책의 시행세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을 구축하도록 함.

○ 기존 유통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상무부) 일정 조건을 갖춘 대형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쇼핑몰 설립을 적극 장려

※ 모바일 인터넷, 위치정보서비스,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통효율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촉구

※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융합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총국, 국가위생계생위(国家卫生计生委), 상무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계의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의약품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함.

- (기타 관련 정부 부처) 에너지, 화학공업, 철도, 임업 등의 산업분야와 전자상거래와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 수행

○ 농촌 지역으로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

- (품질검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농업부,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총국) 신선한 농산품에 대한 표준체계, 동식물검역체계, 안전추적체계, 품질보장 및 안전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농산품 저온유통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도록 함.

- (상무부, 농업부)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역을 설치하고,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 (농업부, 품질검사총국, 공상총국) 지역표기제품의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표기제품의 홍보 및 판매, 브랜드 농산품들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장려함.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을 활용한 공업 생산방식의 혁신을 추진

-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전자상거래 제품 생산 단계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3D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을 적극 장려
  - ※ 전자상거래 고객관리시스템과 제조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제품 생산업체들의 주문식 생산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 (상무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브랜드 경영을 촉진 하고, 연구개발, 설계, 생산, 물류의 효율적 기능 배치를 통해 온라인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함.

#### ○ 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

-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 보험, 공모펀드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온라인화를 장려하되, 온라인 보험 상품에 대한 심사 및 비준, 정보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전자상거래 신용보증보험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진행
  - ※ 소기업의 신용대출 및 신용보험, 개인 소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적극 장려하며, 신용보증증권에 의한 용자범위를 확대시킴.

#### ④ 물류 인프라 설비 보완

##### ○ 물류 배송시설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원

- (교통운수부, 상무부, 우체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과 산업영역을 초월한 스마트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공동화와 같은 새로운 배송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각급 지방 인민정부, 상무부, 우체국, 농업부) 물류 배송 터미널, 스마트 택배함 등의 물류 설비 구축을 지원
  - ※ 아파트 단지, 농촌의 정보서비스 센터, 편의점 등에서 택배 배송 서비스

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농촌지역까지 택배서비스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각급 지방 인민정부, 우체국, 상무부, 교육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와 택배회사 및 제3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택배함 혹은 택배 접수실 설치, 공동배송터미널 설치 방식 등을 통한 택배서비스의 교내 진출을 장려함.

○ 물류 배송 차량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

- 도시 내 배송 차량의 표준화, 전문화 추진
- 배송용 자동차, 전동 삼륜차 등에 대한 차량 관리 방법 마련
-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친환경에너지 차량의 활용을 적극 장려
  - ※ 전기충전소, 가스충전 설비의 확대 설치

○ 물류 창고설비를 합리적으로 구축

- (주택도농건설부, 공안부,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상무부, 임업국) 창고건설 표준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 창고설비 건설을 장려하며, 소외 지역의 창고 설비 건설을 강화함.
- (각급 지방 인민정부) 도농계획, 토지이용에 대한 총체적 계획, 연도별 토지공급계획을 통해 물류 창고 용지 분배에 대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 창고용 용지의 임의적 용도변경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함.

## ⑤ 대외 개방 확대

○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상무부와 품질검사총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전자상거래 규정을 위한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전자상거래 관련하

여 지역·국가 간의 협력 교류를 강화시킴.

- 중국 전자상거래 인증 조직과 국제 전자상거래 인증 조직 간의 상호인증 방안을 연구

○ 해외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

- (관세청, 재정부, 세무총국, 품질검사총국, 외환국) 해외 전자상거래의 통관, 검역, 외환결제, 수입세 납부 등 핵심 수출입 업무를 위한 창구의 단일화를 추진

※ 해외 전자상거래 상품의 리콜 및 반송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관 효율을 제고함.

- (관세청, 품질검사총국) 해외 전자상거래의 리스크 관리·감독 제도와 해외 전자상거래 상품의 통관 및 검역 관리·감독 모델 구축

※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 및 관련 물류 기업들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전염병이나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 화물의 유실 방지

○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 정책성 은행으로 하여금 해외 M&A를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자금유자를 지원하도록 장려

※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에 관한 정책 연구를 지속

- (외환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투자금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 (기타 관련 정부 부처) 홍콩·마카오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방하고, 대만과 중국 양안의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실험구역을 설치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안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적극 추진함.

⑥ 안전망 강화

-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안부와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암호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보안전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적극 장려
  - 전자상거래 기업과 전문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구, 기타 관련 관리 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 이를 통해 네트워크 보안 위협에 대한 예측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거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정부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공상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전자상거래 거래 안전 관리 제도 확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전자상거래 거래 주체들의 안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
  - (공업정보화부, 공상총국, 암호국) 전자인증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거래 시 전자인증서의 활용확대, 전자계약과 같은 전자상거래 거래 증서에 대한 관리 체제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거래 주체들의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법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견’은 공안부, 공상총국,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하여금 거래기록 및 일지 보존, 불법 범죄의 단서 보고 등에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장려
  - 판매금지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
  - 비정상적 거래, 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강화



-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 전자상거래 기업과 유관 관리 부문과의 협력 강화

## ⑦ 기본 체계 보완

### ○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체계를 보완

-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적합한 민원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상품 코드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상품 품질정보 공개 규정을 설립하도록 함.
- (세무총국, 재정부, 국가 당안국(檔案局), 국가표준위원회) 전자영수증과 전자회계기록 관련 정책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표준 및 규정을 개선하도록 함.
- (통계국, 상무부) 전자상거래 통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계범위의 확대, 통계의 적시성 및 사실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타 관련 정부 부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유관 법률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자영수증, 전자계약, 전자검역보고서 및 증명서, 각종 전자거래 증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 ○ 신용시스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함.

- (공상총국, 상무부,公安부, 품질검사총국) 전자상거래 신용정보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기업의 신용정보 공개를 장려하며, 전자상거래 기업과 신용서비스 기관에 인구, 법인, 상표, 상품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을 개방하도록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전자상거래 신용평가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정보유출이나 유실에 대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안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온라인 신분증 활용을 장려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실명제, 신용 인증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
- 과학기술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의 정부 부처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거래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 온라인 주문제작 서비스, 온라인 무역 서비스, 온라인 거래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기술센터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양성
- 지역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이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총국 등 관련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
  -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 시범 기지 건설을 가속화
  - 중서부, 동북부 지역의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



## □ 6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상승세 시현

- 2015년 6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8%로 전월대비 0.7% 포인트 상승하면서 2개월째 상승세를 시현
  - 그중 광업은 2.7%, 제조업은 7.7%, 전력·가스·수도는 2.1%를 각각 기록, 전월대비로는 광업이 1.2% 포인트, 전력·가스·수도가 각각 0.1% p씩 하락한 반면, 제조업이 1% 포인트 상승하면서 공업 전체를 상승세로 견인
  - 2015년 상반기 기준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6.3%로 전년동기대비 2.5% 포인트가 감소, 그중 제조업은 7.1%로 전년동기대비 0.6% 포인트 감소
- 2015년 상반기 기준, 소유제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제별로 부침이 심각
  -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증가율은 각각 1.9%와 2.0%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3.6% 포인트와 1.2% 포인트씩 줄어들었고, 사영기업(8.7%)과 주식제기업(7.5%) 역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2.7% 포인트, 2.7% 포인트가 감소
  - 외자기업 증가율은 3.8%에 그쳐 평균치를 하회하였으며, 역시 전년동기대비 3.8% 포인트가 감소
- 6월 역시 5월과 마찬가지로 기계류가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종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 둔화가 뚜렷

- 소재산업에서는 비철금속(13.2%)과 화학섬유(11.6%)가 두 자리 숫자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5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에틸렌(4.2%)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선철(-2.1%)과 조강(-0.8%)은 6월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 기계설비에서는 소형 트랙터(-17.9%), 금속절삭기계(-10.7%)가 지난 해부터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설비(4.9%)와 발전설비(2.9%)는 두 달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자동차는 0.7%로 두 달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으나 그중 세단형 승용차는 -11.4%로 세 달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조선(0.6%) 역시 두 달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
  - 전자에서는 컬러TV가 지난 달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15.3%의 빠른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핸드폰(-5.8%)과 컴퓨터(-12.8%)는 금년 들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성숙시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소매업 증가율은 10.5%를 기록하여 두 달만에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로 회복, 상반기 증가율은 10.3%를 기록
- 음식숙박업은 11.6%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도 11.5%로 성장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

**표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전년동기비, %)

업종별	2014년			2015년				
	1/4분기	상반기	연간	상반기	4월	5월	6월	
공업 전체	8.7	8.8	8.3	6.3	5.9	6.1	6.8	
섬유	섬유사	6.3	8.7	5.6	2.8	0.3	2.5	4.2
	방직	2.7	3.0	-0.5	3.6	1.4	1.9	2.2
	화학섬유	4.8	7.5	6.4	11.7	9.2	11.1	11.6
화학	에틸렌	5.3	5.3	7.6	2.3	-7.6	-5.9	4.2
	플라스틱원료	9.2	11.5	10.3	8.8	8.8	2.5	8.5
	플라스틱제품	6.2	6.4	7.4	1.5	-0.5	-0.5	1.6
철강	선철	0.1	0.5	0.5	-2.3	-2.1	-2.0	-2.1

	조강	2.4	3.0	0.9	-1.3	-0.7	-1.7	-0.8
	강재	5.3	6.4	4.5	2.0	3.4	2.1	1.3
비철금속		6.7	5.4	7.2	9.3	9.7	11.4	13.2
기계	금속절삭기계	7.8	5.0	3.0	-4.9	-1.4	-5.7	-10.7
	소형 트랙터	-6.9	-11.1	-13.9	-18.3	-26.1	-13.0	-17.9
	대기오염방지설비	6.9	14.2	11.9	7.0	-4.2	-5.4	4.9
	발전설비	30.0	2.9	9.2	-4.8	-11.3	-32.9	2.9
자동차		10.8	10.9	7.1	2.0	-0.3	-1.6	0.7
조선		-16.2	0.2	5.5	7.1	-1.8	-2.8	0.6
전자	세탁기	-3.5	-3.6	-3.3	4.3	2.8	-1.0	3.1
	냉장고	1.2	0.7	-1.0	0	0.5	3.0	2.6
	에어컨	19.9	16.3	11.5	2.8	11.3	0.5	6.2
	컬러TV	8.5	12.6	6.2	2.7	0.6	-2.7	15.3
	컴퓨터	2.6	7.5	-3.1	-11.7	-10.5	-9.0	-12.8
	반도체	4.2	9.2	12.9	9.2	9.3	6.6	7.6
	핸드폰	14.7	14.0	7.5	-4.5	-5.0	-8.0	-5.8
서비스	화물운수	7.4	7.5	7.1	4.2	3.0	5.6	3.5
	여객운수	1.6	2.5	3.9	0.7	1.0	0.4	-0.01
	우편 <sup>3)</sup>	35.1	35.1	35.6	-	29.1	29.9	-
	통신 <sup>3)</sup>	15.2	15.1	16.1	-	22.1	22.4	-
	소매업	12.2	12.4	12.2	10.3	9.8	9.9	10.5
	음식숙박업	9.8	10.1	9.7	11.5	11.7	11.7	11.6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 주 : 1)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 7월, 관방치는 하락, 민간치는 폭락

- 7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50.0으로 5개월만에 임계치로 회귀하였으며,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확신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형기업이 각각 50.6과 50.0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2 포인트씩 하락하였고, 소형기업(46.9)은 전월대비 0.6 P 하락하면서 임계치를 크게 하회
- 생산지수(52.4)는 임계치를 크게 상회하여 생산이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

한 반면, 신규주문지수(49.9)는 전월대비 0.2 p 하락하면서 임계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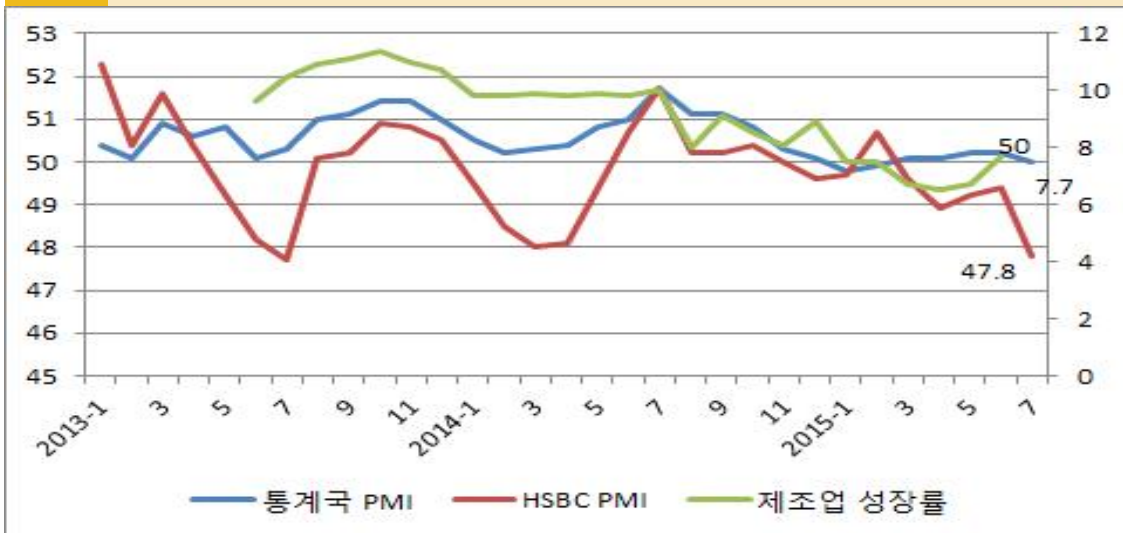
- 원자재재고지수(48.4)와 종업원지수(48.0)는 전월대비 각각 0.3 p, 0.1 p씩 하락하면서 임계치를 크게 하회
- 수출 신규주문지수(47.9)와 수입지수(47.8) 역시 전월대비 각각 0.3 p, 0.2 p씩 하락하면서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움을 나타냄.

○ 한편, 7월 Caixin PMI 지수(이하 민간치)는 47.8로 전월대비 1.6 p 폭락하면서 관방치와 민간치간 경기 체감 정도가 매우 다름을 보여줌.

※ HSBC(汇丰) PMI 명칭이 7월부터 Caixin(財新中國通用製造業) PMI 로 바뀜.

- 7월 민간치 조사 결과를 보면 관방치와 달리 3/4분기 중국 제조업의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수와 외수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생산량은 2011년 11월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종업원 신규채용지수는 2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9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은 불행중 다행

그림 1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지수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 HSBC([www.markiteconomics.com](http://www.markiteconomics.com))



### □ 13.5 계획, 지역발전 격차 축소에 초점 맞춰질 듯

- 7월 20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 따르면,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의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내년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임.
  - 13.5 계획 초안은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수정안이 10월 개최 예정인 중공 중앙 제5차 전체회의(中共中央全會)에 제출될 예정
  - 13.5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계획으로, 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 2012.11월)에서 제기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목표 달성을 앞둔 마지막 5개년 계획임.
    - ※ 제18차 당 전국대표대회는 2020년까지 GDP와 도농주민 일인당 소득을 2010년 기준 2배로 높이고, 문화소프트파워 강화, 국민생활 수준 제고, 자원절약형, 친환경사회 건설을 2020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13.5 계획에서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환경·민생 분야에 중대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낙후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현 단계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의 최대 과제는 동부지역에 비해 경제 성장이 뒤처져 있는 중서부지역, 신성장 동력이 미흡한 동북지역의

경제 진흥과 공공서비스의 균등화인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지역격차 수준은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의 일인당 GDP가 최소 5~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13.5 기간 투자건설과 정책 방면에서 민생분야, 공공인프라시설이 미흡한 분야, 소비 증진 인프라시설 등 ‘3개의 중대 프로젝트(三个重大)’ 를 제시한 바 있음.
- 금년 5~6월, 저장(浙江)과 구이저우(貴州)성 시찰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13.5 기간 빈곤 구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7월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시찰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 진흥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신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에서 동북 3성은 모두 중국 전체 수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최하위에 분포함.  
※ 랴오닝성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전국 31개 성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헤이룽장성 5.1%, 지린성 6.1%로 각각 29위, 28위를 차지
  - 2015년 4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에 관한 약간의견(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이 10월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임.
  - 또한, 7월 31일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가 ‘동북지역의 신형산업 육성 발전 3개년 행동계획’ 을 제정 중이라고 밝혀 동북지역이 정책적 수혜지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함.
- 한편, 7월 열린 정치국회의에서는 13.5 계획 기간 6개 분야에 대한 개혁을 강조
- **(6개 분야)** 경제성장, 산업구조, 농업, 개혁, 녹색성장·균형발전, 민생
  - 그 중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일대일로’,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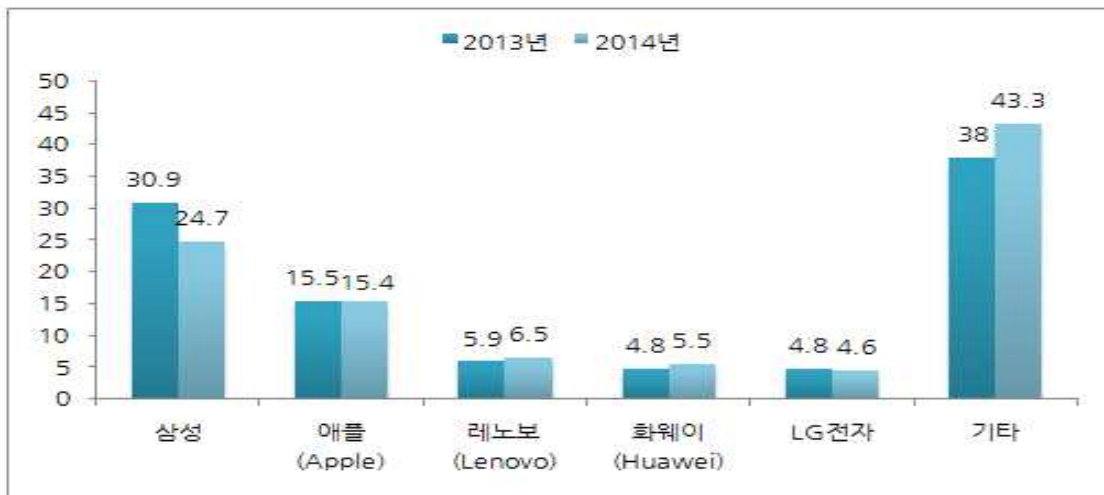
장강경제벨트 등 전략을 바탕으로 전국적 범위의 지역발전전략을 재구성할 것으로 언급

## □ 중국 스마트폰시장: 중국 브랜드 굴기로 한국 브랜드 타격

○ 중국 전자제품 브랜드가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음.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발표한 2015년 2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두 기업 모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삼성전자는 2/4분기에 순이익 8% 감소를 보였는데 그 중 휴대폰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2/4분기 대비 38% 하락했고, LG전자는 TV 부분의 실적 악화로 이익이 45% 하락함.

그림 1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세계시장 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



자료: Gartner 2015.3

주: 레노보 판매량은 레노보와 모토로라의 판매실적 합계

○ 최근 화웨이(华为), 샤오미(小米), 레노보(联想) 등 중국 기업들이 세계 전자제품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애플과 삼성 뒤를 바짝 쫓고 있음.

- 2015년 2/4분기,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화웨이(华为), 샤오미(小米), 레노보(联想)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과 애플에 이어 3위~5위를 차지함.

- 그 중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p 상승해 8.9%를 차지했고, 샤오미는 0.7%p 상승한 5.3%를 기록, 레노보의 시장점유율은 4.8%로 0.4%p 하락함.
- 3대 중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총 19%로 14.1%를 차지한 애플을 초과했으며,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24.8%에서 21.7%로 3.1%p 하락함.

○ 한편, 중국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산 브랜드 점유율이 70%를 초과

- 핸드폰 매출량 기준 중국산 브랜드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4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후, 계속 상승하여 2014년 9월 70%를 초과함.
- 스마트폰시장 매출액은 2014년 3/4분기에 중국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이 55%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외국 브랜드를 추월함.
-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는 샤오미(小米), 화웨이(华为), vivo, OPPO, 레노보(联想), 쿠파이(酷派) 등임.

**표 1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5대 브랜드 변화**

2010년: 외국브랜드 5개	⇒	2015년 6월 :외국브랜드2+ 중국브랜드3
1. 노키아(Nokia) 2. 삼성(Samsung) 3. 모토로라(Motorola) 4. 소니에릭슨(Sony Ericsson) 5. 블랙베리(Blackberry)		1. 샤오미(小米) 2. 화웨이(华为) 3. 애플(Apple) 4. vivo 5. 삼성(Samsung)

자료: 易观国际(Analysys International), IHS Technology

○ IHS Technology 시장조사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5대 브랜드 가운데 3개가 중국 브랜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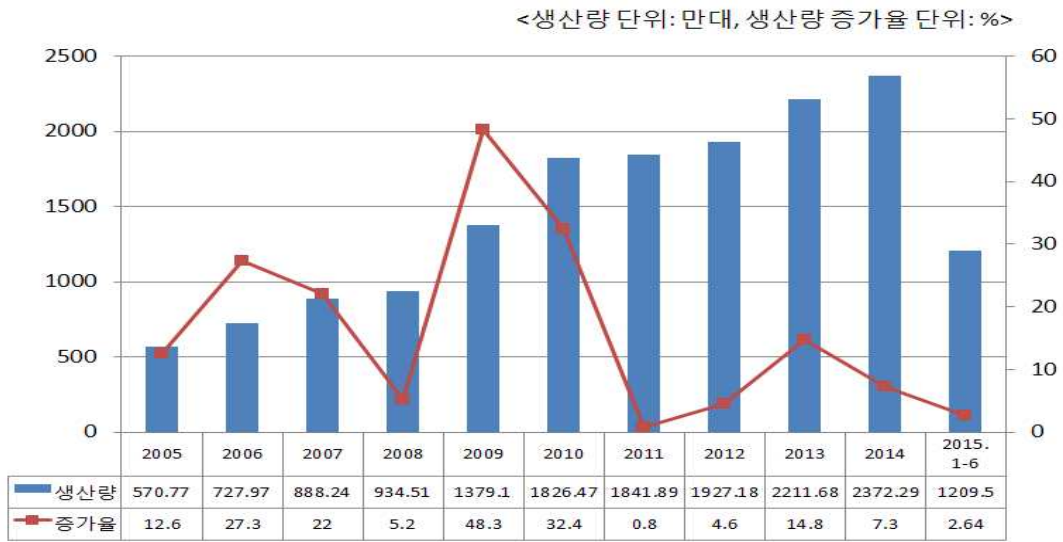
- 1위는 시장점유율 18%를 차지한 샤오미, 2위는 16%의 화웨이로 나타났고, 삼성은 9%로 5위에 그침.

- vivo(10%), OPPO(8%) 등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브랜드는 여전히 중저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고가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스마트폰시장은 위축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인도가 스마트폰 산업의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떠오름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인도 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15년 2분기, 레노보, 샤오미, 화웨이, 진리(金立, Gionee) 등 중국 기업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점유율은 12%에 달함.
- 그 중 레노보는 모토로라 스마트폰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로 확대, 인도의 5대 스마트폰 공급업체가 됨.
- 샤오미는 팍스콘과 제휴하여 인도 현지 생산을 개시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2014년말 4% 점유율을 확보함.

#### □ 中 자동차산업 성장둔화 속, SUV 및 신에너지 자동차 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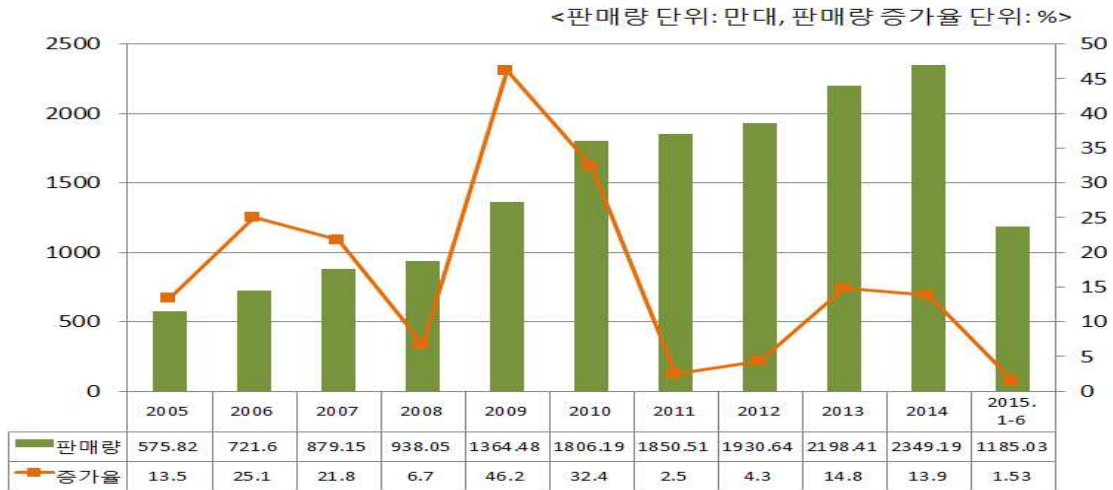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CAAM)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1~6월 자동차 생산량은 1,209.5 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판매량은 1,185 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함
-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2,000 만대를 넘어서면서 증가율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시장이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양상이 뚜렷
  - 금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3% 전후로 예상

그림 2 2005-2015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연도별 통계 정리

그림 3 2005-2015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 변화 추이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상용차와 세단형 승용차의 생산 및 판매량이 둔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SUV 와 MVP 자동차는 아직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상용차의 생산량은 176 만 8 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하였고, 판매량은 176 만 2 백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 상반기 승용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032 만 9 천대와 1,009 만 4 천

6 백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4.8%씩 증가

- 그중 세단형은 생산량 591 만대, 판매량 579 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5.9%의 감소율을 기록
- 그 중 SUV 자동차의 생산량(273 만대)· 판매량(266 만대)은 전년 대비 각각 47.6%, 45.9%씩 대폭 증가하였으며, MPV 자동차의 생산량(106 만대)· 판매량(102 만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2%와 15.1%씩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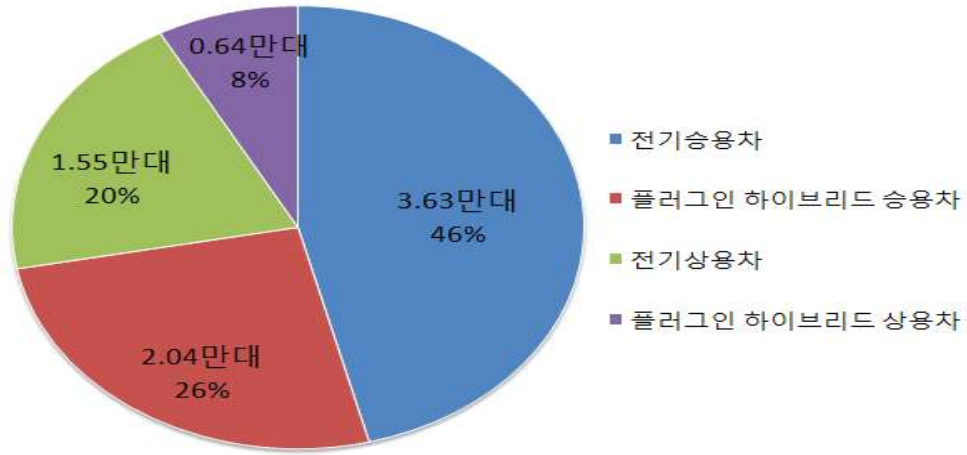
**표 2** 2015년 상반기 중국 차종별 생산량 및 판매량 실적

차종	생산량(만대)	증가율	판매량(만대)	증가율
승용차	1,033	6.3%	1,009	4.8%
세단	591	-4.4%	579	-5.9%
MPV	106	16.2%	102	15.1%
SUV	273	47.6%	266	45.9%
교차형	63	-18.1%	63	-19.2%
상용차	177	-14.8%	176	-14.2%
객차	28	4.0%	28	1.5%
화물차	148	-17.7%	148	-16.6%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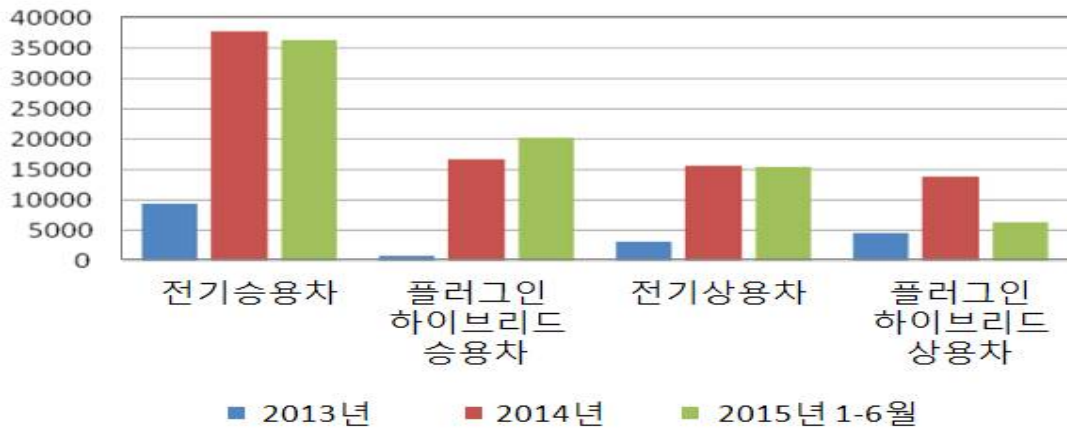
- 2015년 상반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중국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
  - 2015년 상반기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증가한 78,500대를 기록, 그 중 신에너지 승용차의 생산량은 56,700대로 전체 신에너지 차량의 72.2%를 차지
  -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의 생산량이 36,300대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면서 성장을 리드

그림 4 2015년 상반기 신에너지 자동차 차종별 생산량



자료: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그림 5 2013년 이후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 변화 추이(단위: 대)



자료: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의 성장 역시 2015년 상반기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 중 하나

- 외국 브랜드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승용차 판매량은 418.5만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 포인트 상승한 41.5%를 기록

그림 6 2015년 상반기 중국의 국적별 승용차 시장점유율(단위: %)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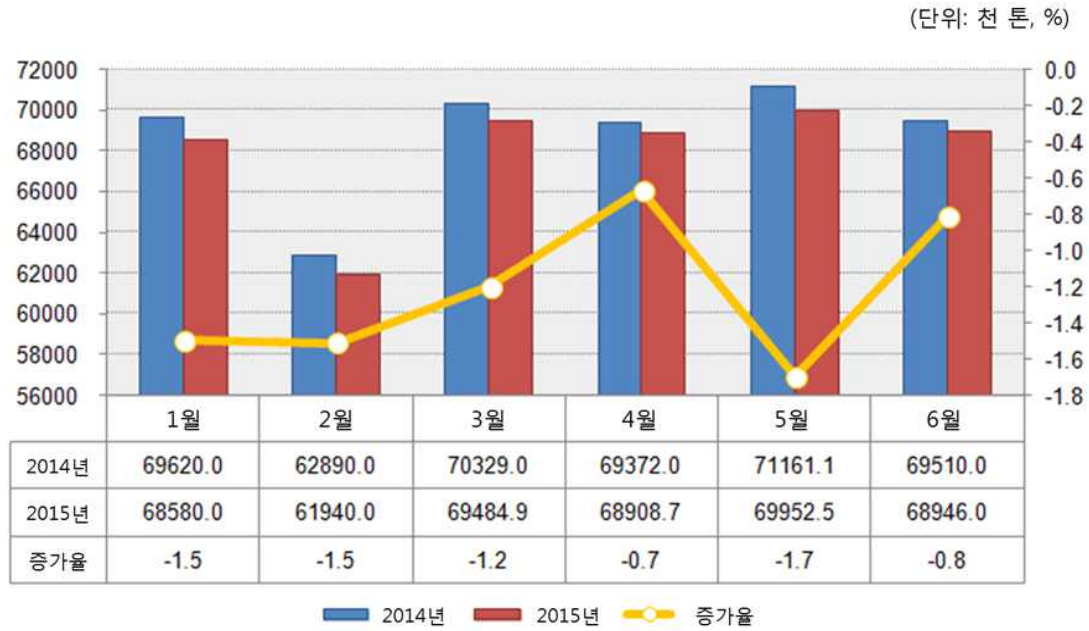
- 한편, 상반기 동안 중국 경제하방의 압력과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자동차 가격 하락 현상이 확산
  - 상하이 GM, 창안 Ford, 베이징 현대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하락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시도
  - 외국계 브랜드의 가격 하락 현상에 영향을 받아 창청(长城) 등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 역시 가격 하락 움직임에 동참

### □ 상반기 중국 조강(粗钢) 생산량 20년 만에 하락

- 중국강철공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중국 조강(粗钢) 생산량은 4억 99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
  - 조강(粗钢)은 제강로에서 제조된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강철로서, 성형, 가공 후 판·봉 등 제품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됨.
  - 2015년 6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6,895만 톤으로 전월 대비 -1.44% 하락,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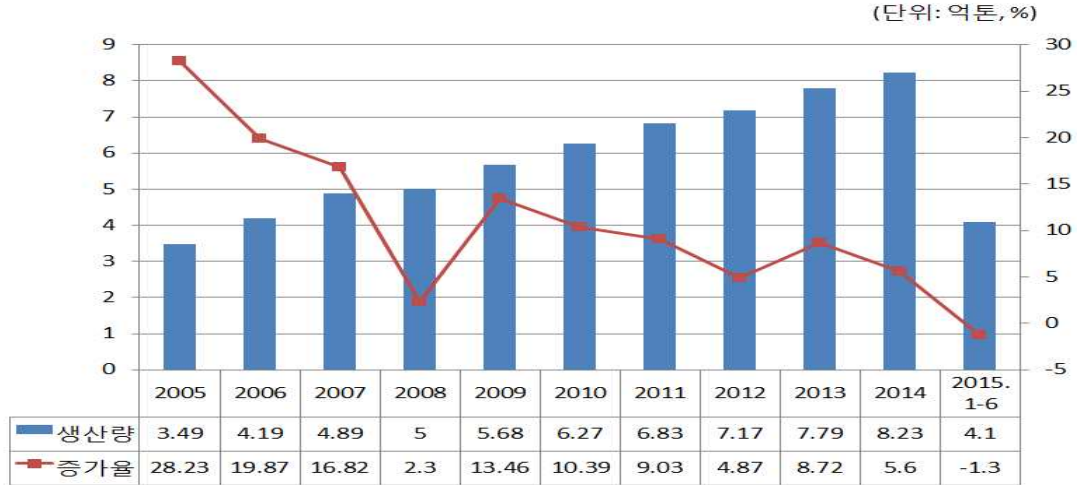


그림 7 2015년 상반기 월별 조강 생산량



자료 : 세계철강협회

그림 8 연도별 중국 조강 생산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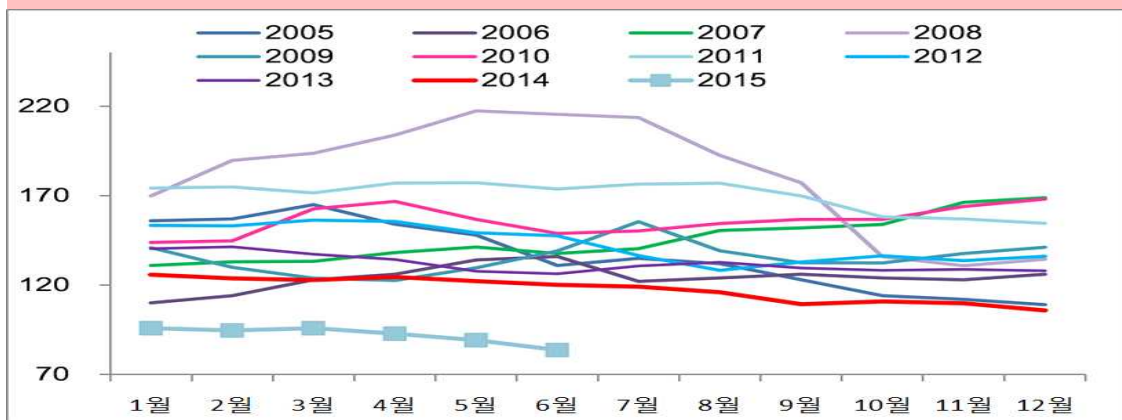
자료: 중국강철공업협회

- 조강 소비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자동차·조선 등 철강수요가 높은 산업군의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년에도 여전히 강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



- 2015년 6월 중국의 강재가격종합지수는 68.14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3.48 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44 포인트 하락하였음.
- 6.5mm 선재(線材)와 20mm 중후판(中厚板), 1.0mm 냉연코일&판(cold rolled steel coil & sheet)의 평균가격은 각각 톤당 2,355 위안, 2,327 위안, 3,071 위안으로 집계되어, 전월 대비 128 위안, 169 위안, 114 위안씩 하락,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6%, 32.8%, 26.5%씩 하락하였음.

그림 9 중국 강재가격 변동 추이



자료: 중국강철공업협회

- 상반기 중국 중대형 철강기업의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도 크게 증가
  - 올해 6월까지 중국 중대형 철강기업들의 매출액은 1조 5천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하락하였고, 이윤총액은 16억 6천만 위안을 기록
  - 철강 기업의 적자 규모는 185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5% 증가하였음.
- 철강업계의 장기적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자 중국 정부는 ‘제 13차 5개년 계획’에 철강 산업에 대한 대대적 개혁 내용을 담을 예정



## 텐진항 폭발사고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최용민

- 텐진(天津)항 폭발사고는 중국측의 인재로만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됨.
  - 텐진이 북방지역의 최대 항구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중국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로도 작용
- 단기적으로는 현지 통관 및 검역기능이 마비되면서 물류루트의 다원화와 적정한 재고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움.
  - 장기적으로도 중국내 위험물의 운송과 보관, 그리고 생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해 중국내 생산법인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전망
- 텐진항 사고를 계기로 중국내 경영전략상(물류 및 재고관리)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함.

### 1. 텐진항 : 중국의 4대 항구이자 대중국 무역의 거점항

- 텐진항은 철광석, 석탄 및 원유 등 벌크화물을 북방지역으로 수입하

## 는 거점항구

- 올해 상반기 텐진항의 철광석 수입량은 2,508만 톤으로 중국 전체 수입량의 5.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허베이성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주요 항구중 하나로 그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음.
- 영국 선박 컨설팅 업체인 클락슨(Clarksons)은 철광석 운수 지연으로 단기간에 철광석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인상폭은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 텐진항은 중국의 4대 거점 항구의 하나로 중추적인 물류기능을 수행

- 2014년 기준으로 텐진항의 총 물동량은 5.4억 메트릭톤(MT, 중국내 4위)이며, 이중 일반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1,400만 TEU(6위)임.
- 총 물동량 순위 : 닝보, 상하이, 텐진, 탕산, 광저우, 쑤저우, 칭다오, 르자오(日照, 산둥), 친황다오, 옌타이 등
- 국제 물동량 순위 : 닝보, 상하이, 칭다오, 텐진, 탕산, 르자오, 선전, 쑤저우, 광저우, 톈윈강 등
- 순수하게 컨테이너 물동량만 보면 중국에서 6위에 해당
-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 상하이, 선전, 닝보, 칭다오, 광저우, 텐진, 하이커우, 잔장(湛江, 광둥), 다롄, 샤먼 등

## □ 텐진항이 중요한 이유는 주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소비재(최종재)를 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원자재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

- 석탄과 철광석은 물론 전기전자와 화학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자재를 취급하는 항구인 관계로 수출입은 물론 중국내 산업설비 가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폭발한 화학약품을 주로 사용하는 업체와 인근 보세구 내 입주업체는 재고 등의 문제로 가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2. 사건 파장 : 물적 피해 외에 물류차질 불가피

□ 중국내 4대 항구인 텐진항 국제물류 핵심지역에 위치한 루이하이(瑞海)국제물류유한회사의 위험물질 저장창고 폭발로 인명 및 환경피해는 물론 기업들의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폭발사고 발생시간은 8월 12일 23시 30분경이며, 그 이후에도 소규모 폭발이 여러 번 진행되고 유독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복구작업이 지연됨.

- 2015년 8월 17일 기준, 사망자 수 114명, 실종자 수 70여명, 입원자 698명(그중 중상자 57명)으로 드러났으며, 이재민 숫자도 6천여명에 달함.

- 루이하이(瑞海)국제물류유한회사는 화물 적하와 창고업무를 주 영업범위로 2012.11 설립되었으며, 2014.5월 위험물 취급 업무를 추가로 인가받음.



□ 텐진항이 중국 최대 자동차 수입항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액이 20억 위안으로 추정됨.

○ 폭발사고 발생지가 수입산 자동차 물류창고와 인접해 있어 만여대의 수입 차량이 훼손됨.

-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가 4천여대 피해를 입었으며, 폭스바겐사 2,700여 대, 클라이슬러, 볼보, 마쯔다 등의 차량이 적재되어 있었음.



□ 텐진해관의 업무가 일부 중지되고 있으며, 텐진항 지역의 교통통제로 차량운행도 원만하지 않은데다 통제조치로 부두에 대한 접근도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임.

○ 폭발사건 초기에 한국의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물류업체들의 업무가 중단되어 우회운송이 불가피하며, 부두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피해상황 파악이 힘든 실정

### 3. 대응방안 : 우회운송과 위험물 관리강화 등 조치 필요

□ 8월 14일 이후에 업무가 재개되어 수출통관이 진행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통관작업은 원활하지 못함.

○ 일시적으로 선박의 신규 접안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상선들이 외항에 대

기중이며, 하역이 되지 않고 있음.

- 완전한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한국에서 수출화물을 텐진으로 보낼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통관이 힘들 수도 있어 사전에 체크가 필요

□ 현지 세관 등의 사무실은 파손 및 통신 등의 문제로 임시 사무실을 개통하여 사용중이나 그마저 전화 연결이나 업무진행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

○ 텐진항 세관은 인터넷 공지를 통해 임시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음.

□ 이에 따라 텐진항을 통한 대중국 수출입 화물에 대해 신속히 우회하는 조치가 필요

○ 대중국 수출화물은 허베이성 진황도, 산둥성내 웨이하이, 칭다오, 옌타이 항구 등으로 우회하는 조치가 필요

○ 신속한 화물이동이 필요한 경우 항공으로 대체하는 운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텐진항 중심의 해상 및 육상운송이 재개되더라도 일부 운송설비에 피해가 있고 운전사 등의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출입 물류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여타 주변항구로 물동량이 몰릴 경우 적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

□ 특히, 화학약품 등 위험물 운송은 당분간 텐진항을 우회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다른 항구를 이용하더라도 포장작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텐진항의 위험물 취급이 당분간 힘들고 향후 복구되더라도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중국내 위험물에 대한 보관 및 운송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 물류설비 강화 및 신규 매뉴얼이 필요

□ **텐진항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물류운송 업체는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

○ 한·중 항로의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텐진항내 태평양부두의 경우 폭발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상황이어서 복구시기도 다른 부두에 비해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인 통관 및 검역관련 시설물 파손이 적지 않고 담당자들의 충격도 적지 않아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생산과정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투자기업들은 중국내 보관 및 물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위험물 취급설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불가피해 원가 상승은 물론 상황에 따라 적기 생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위험물 조달에 대한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